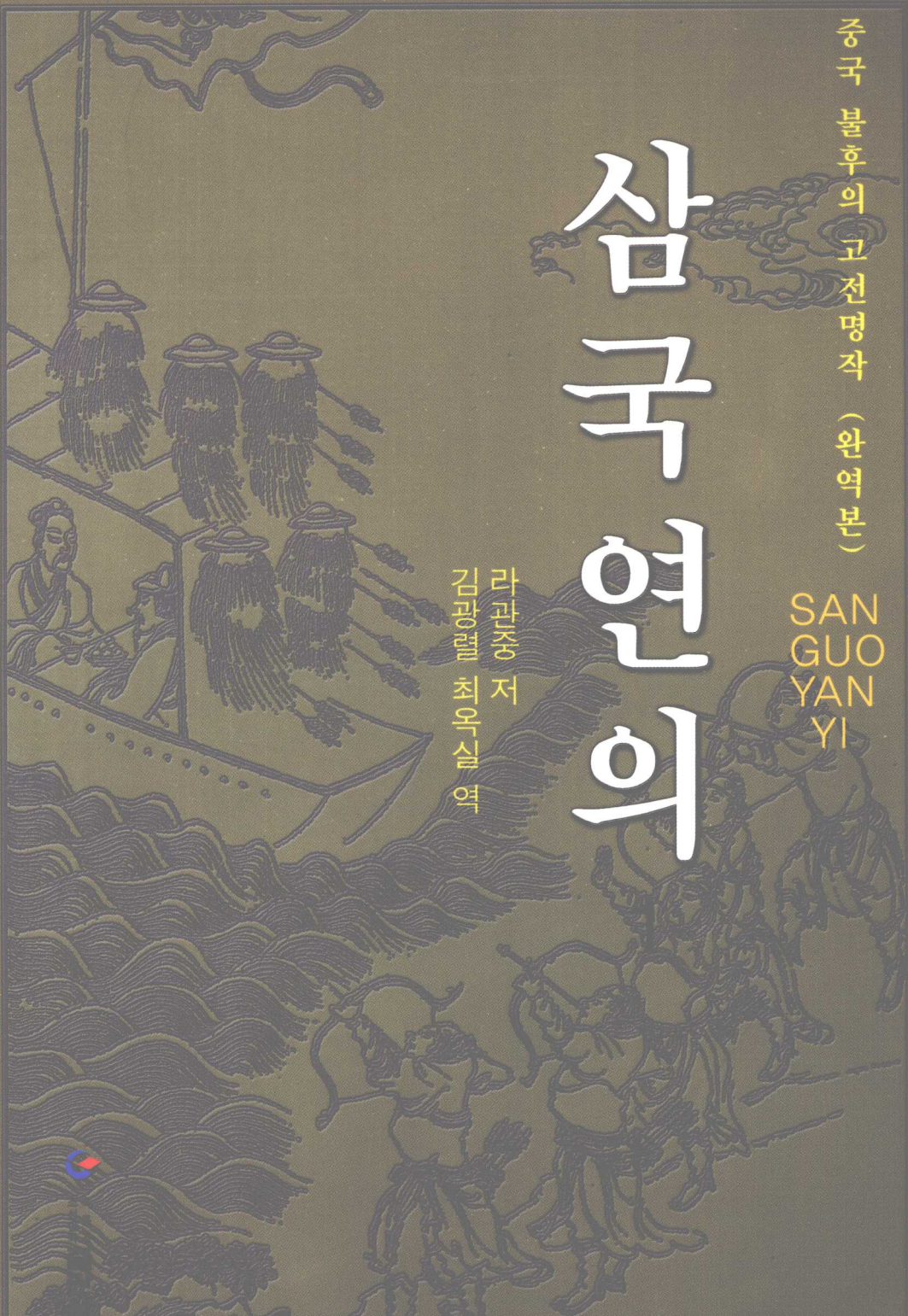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삼국연의

SAN GUO YAN YI

라관중 저
김광렬 최옥실 역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삼국연의 1

라관중 저
김광렬 최옥실 역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三国演义.1：朝鲜文 /（明）罗贯中著；金光烈，崔玉实译.—哈尔滨：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2009.4
ISBN 978-7-5389-1568-6

Ⅰ. 三… Ⅱ.①罗…②金…③崔… Ⅲ.章回小说—中国—明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Ⅳ.I242.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9）第 049305 号

本书根据人民文学出版社 1973 年 12 月
第 3 版翻译出版

书　　名/ 三国演义（1-4）
著　　者/（明）罗贯中
译　　者/ 金光烈　崔玉实
责任编辑/ 刘相海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1-57364224
电子信箱/ hcxmz@126.com
印　　刷/ 牡丹江新闻传媒印务有限公司
开　　本/ 640mm×960mm　1/16
印　　张/ 120
字　　数/ 1950 千字
版　　次/ 2009 年 5 月第 1 版
印　　次/ 2009 年 5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1568-6（民文）
定　　价/ 138.00 元（共四册）

머 리 말

《삼국연의(三国演义)》를 《삼국통속연의(三国通俗演义)》 또는 《삼국지연의(三国志演义)》라고도 한다. 《삼국연의》는 세상에 널리 전해졌고 대중들이 익히 아는 영향력있는 장편력사소설이다.

1

《삼국연의》는 동한(东汉)말년과 위(魏), 촉(蜀), 오(吳) 삼국의 력사 즉 동한 령제(灵帝) 중평원년(中平元年-기원 184년) 황건봉기로부터 시작하여 진무제(晋武帝) 태강원년(太康元年-기원 280년) 오가 멸망하기까지의 근 한세기의 력사를 제재로 하였다. 진조(晋朝) 사학자 진수(陈寿)는 이 단계의 력사를 가지고 《삼국지(三国志)》라 하는 사서(史书)를 편찬하였고 남조(南朝) 송(宋)사람 배송지(裴松之)는 《삼국지》에 주석을 달아 많은 자료를 보충하였다. 동진(东晋)사람 습착치(习凿齿)가 쓴 《한진춘추(汉晋春秋)》도 역시 삼국의 력사를 쓴 력사서적이다. 이로부터 삼국에 관계있는 이야기가 줄곧 류전되였다. 당조(唐朝)사람 리상은(李商隐)의 교아시(骄儿诗)에 "장비를 론하여 즐기고 등애를 론하여 웃었노라."고 한것으로 보아 당시에 벌써 삼국의 인물을 해학적재료로 삼았다는것을 볼수 있다. 송(宋), 원(元)시대에 삼국인물은 민간예인들에 의하여 강단과 무대에 올랐다. 송조때 맹원로(孟元老)가 지은 《동경몽화록(东京梦华录)》 기재에 북송(北宋)시기 《설삼분(说三分)》(즉 삼국의 설화)이 《설화》가운데서 독립적인 과목의 하나로 되였었고 또한 《삼분》설화를 전문하는 저명한 예인들도 나타났다는것이 씌여있다. 우리가 지금 볼수 있는 삼국고사의 가장 일찍한 정본(定本)은 원초(元初)부터 원 31년사이(기원 1294년)에 발간된 각본(刻本) 《삼분사략(三分

事略)》이라는것인데 가능하게 송대(宋代) 설화인의 저본(底本)이였을것이다. 《삼분사략》은 상, 중, 하 세권인데 "류수(刘秀)가 봄날 어원에서 꽃구경하고 사마중상(司马仲相)이 옥에서 판결받는"데로부터 시작되고 본문은 도화동산에서 세 호걸이 의형제를 뭇는데로부터 제갈량(诸葛亮)이 병사하는데까지인데 그 자수가 8만여자에 달하였다. 그의 서술이 비록 간단하고 거칠기는 하지만 삼국고사의 시말을 대체로 개괄하였다. 금대 원본(院本), 원대 잡극(杂剧)에서도 삼국고사를 무대에 올려놓았었는데 지금 류전되고있는 극으로는 40여종이 있고 극본으로는 10~20종이 있다. 원말명초(元末明初)의 《삼국연의》는 바로 상술한 사서, 평화, 희곡을 토대로 해서 쓴것인데 작자는 라관중(罗贯中)이다. "정사(正史)에 의거하여 소설을 채택하고 문사(文辞)를 인증하고 호상(好尚)을 통괄하였다."고 하는 고유(高儒)가 지은 《백천서지(百川书志)》의 설법은 라관중이 《삼국연의》를 쓴 실제정황에 부합된다.

라관중의 평생에 관하여서 사전(史传)에는 보이지 않고 조금 남은 자료에 기재된것도 틀린 곳이 많은데 그중 라중명의 《록귀부속편(录鬼簿续篇)》이 비교적 믿을만한다. 거기에 이렇게 씌였다. "라관중은 산서(山西) 태원(太原)사람이며 별호는 호해산인(湖海散人)이다. 남들과 적게 어울렸으며 악부, 은어 등에 정통하고있었다. 나와는 망년지교지만 세파의 연고로 서로 멀리 갈라져있었다. 지정 갑진년(至正甲辰年)에 다시 만나고는 갈라진지 60여년이 되니 나중에 어떻게 되였는지 전혀 알길이 없다." 지정 갑진은 1364년이니 라관중은 원말명초 즉 대략 1330~1400년기간에 생활한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쓴 소설은 매우 많은데 수십종이 전해졌으며 지금까지 남아있는것으로는 《삼국연의》이외에 또 《수당지전(隋唐志传)》, 《잔당오대사(残唐五代史)》와 《삼수평요전(三遂平妖传)》 등이 있다. 또 그는 사곡(词曲)에도 능통하였다. 그가 지은 잡극(杂剧)으로 지금 알려지고있는것은 《조태조룡호풍운회(赵太祖龙虎风云会)》 등 3종이 있다. 라관중은 원말의 사회적대동란을 겪으면서 사회의 하층에 접근하여 당시의 현실투쟁을 직접 보았고 고난에 찬 인민의 생활처지를 료해하였으며 그들의 리상과 추구에 대하여 다소 리해하게 되였다. 그러나 력사적조건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는 봉건적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지주계급정권을 대체할수 있는 그 어떤 발상도 내놓지 못하였고 또 내놓을수도 없었다. 라관중이 지은 몇몇 소설의 사상경향은 "충(忠)"과 "의(义)"를 숭상하고 "왕도(王道)"와 "인정(仁政)"으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관중은 일정한 정도로 사회동란의 모종 정치적인소를 보아냈지만 그의 태도는 착오적이였다. 즉 농민봉기의 력사적작용을 근본적으로 부인하였던것이다. 그의 이와 같은 정치적주장은《삼국연의》속에서 표현되였을뿐아니라《수당지전》과《삼수평요전》에서도 선명하게 반영되고있다.

지금 볼수 있는《삼국연의》의 가장 일찍한 간본은 명초 홍치갑인년(弘治甲寅年) 즉 기원 1494년에 서문이 씌여졌고 가정 임오년(嘉靖壬午年) 즉 기원 1522년에 간행된《삼국지통속연의》이다. 전서(全书)는 24권인데 240칙(则)으로 나누고 권두(卷头)에 "진(晋) 평양후(平阳侯) 진수가 사전(史传)을 하고 후학 라관중이 편차(编次)하였다."라는 제목이 달려있다. 이 각본과 라관중의 원본사이에 내용상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이것을 설명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후에《삼국연의》간본은 더욱 많아졌는데 명조말년의것만 하여도 지금 볼수 있는것이 20여종이나 된다. 이는 바로 이 책이 아주 널리 류전되였던것을 설명한것이다. 어떤 간본은 총평(总评), 회평(回评) 그리고 두주(头注)와 협주(夹注)따위를 빼버리면 내용상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였다.

청조초년에 모륜(毛纶)(자는 성산-声山)과 모종강(毛宗岗)(자는 서시-序始) 부자가《고본(古本)》이라고 가탁(假托)하여《삼국연의》를 다시금 수정하고 회(回)에 따라 평론을 덧붙였다. 그들은 수정과정에서 진일보로 촉한(蜀汉)을 돌출히 내세워 정통화(正统化)하였으며 조위(曹魏)를 정통으로 하는것이 착오라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동시에《통감강목(通鉴纲目)》에다 촉한이 정통이라 쓴 주희(朱熹)의 론법을 채용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주희의 강목에 준하여 특히《연의》에다 이를 적어 바르게 하였다." [《독삼국지법(读三国志法)》] 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관우(关羽)를 숭상하여 그를 "주인의 은혜를 갚는 마음이 지극하며", "보은의 의를 중히 여기는", "고금 명장가운데 첫손 꼽히는 기인이다."(《독삼국지법》)라고 하였다. 모륜과 모종강이 이처럼《삼국연의》를 수정하자 소설은 내용이 있어

서 봉건통치사상과 봉건례교관념이 더 짙어지게 되였다. 청조통치자들은《삼국연의》를 아주 중시하여 일찍 사람을 시켜《사서(四书)》와 함께 이 책을 만문으로 번역하였고 관우를 "충", "의"의 화신으로 받들었다. 동시에 청조통치자들은 봉건륜리관념을 고취함으로써 봉건통치를 유지옹호하려고 봉건적정통관념을 대대적으로 선양하였는바 비단 "명(明)을 위하여 복수"한다는것을 표방하고 명의 황릉을 수건하였으며 자신이 명의 "정통"을 계승한것으로 자처하였다. 이런 점으로 보면《삼국연의》를 모씨 부자가 수정한것은 청조통치계급의 관점과 서로 영합되는것이였다. 이밖에 모륜, 모종강은 문자와 세부에도 적지 않은 수정을 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중국소설사략(中国小说史略)》에서 로신선생이 이렇게 지적하였다.

"무릇 고쳐진 곳들은 그 서례(序例)를 보아 알수 있는데 그의 두드러진 례를 대략 들어본다면 일은 고친것이요,…이는 첨가한것요, …삼은 삭제한것이니…그밖에 소절(小节)로는 첫째로 회목을 정돈하고 둘째는 문사(文辞)를 수정하고 셋째로 론찬(论赞)을 삭제하고 넷째로 쇠사(琐事)를 첨삭하고 다섯째로 시문을 고치거나 바꾸어놓고 하였다."

수식과 가공을 거쳐서《삼국연의》는 원본의 약간 흩어지고 지루한 장면들이 고쳐져서 집약되고 류창하게 되였으며 따라서 광범히 류전되게 되였다. 모륜, 모종강이 수정한《삼국연의》가 발간된후로 약 3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용상에서 커다란 변동이 없다.

《삼국연의》창작의 연변(演变)과정에는 주의할만한 두가지 특점이 있다.

첫째, 이 소설은 집체창작의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 씌여졌다. 작자들가운데는 민간예인도 있고 봉건문인도 있는바 그들의 정치적, 예술적 관점과 창작의도에는 각기 부동한 점들이 있다. 장구한 세월을 거쳐 전설로 전해오고 구비 또는 서사적창작과정을 거치는데서 부동한 시대의 력사적내용들이 집성되고 융화되였으므로 이 소설에는 비교적 복잡한 사상적경향들이 내포되여있다.

둘째,《삼국연의》는 력사소설이다. 삼국의 인물고사는 장구한 세월을 류전되여왔기에 사람들이 익히 아는바였다. 이런 정황은 창

작활동에서 모종의 제약을 받지 않을수 없었다. 즉 원래의 삼국의 인물과 고사를 완전히 무시할수 없었던것이다. 작자는 원유의 인물과 슈제트를 전반적으로 개변할순 없었지만 자신의 세계관에 의하여 취사선택을 하여 의식적으로 모종 방면을 돌출시키거나 삭제하고 예술적허구와 각종 예술적수단으로 자신의 사회정치사상을 선전하였던것이다. 그러므로 《삼국연의》는 삼국의 력사인물과 력사사실을 간단히 서술한것이 아니라 예술적구상과 예술적가공을 거친 문학작품이다. 《삼국연의》는 일정한 정도로 봉건사회 각 계급의 계급적관계와 생활면모를 묘사하였고 봉건통치자의 모종 죄악을 폭로하였으며 봉건사회의 정치, 군사, 투쟁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부분적 자료를 제공하였고 일부 영향력이 있는 인물형상을 부각하였고 거기에다 예술적특색을 가미해놓았다. 그러나 봉건사회에 있어서는 지주계급의 사상이 통치적지위를 차지한 사상인것이다. 따라서 봉건문인들이 편수한 사서가 봉건제도를 위해 복무하는것은 더 이를 나위가 없거니와 민간적이거나 그에 가까운 문예라 하여도 지주계급사상의 침식을 부동한 정도로 입게 되는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민간에서 류행된 평화(平话)거나 희곡중에서도 어떤것은 봉건의식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를테면 《삼국지평화(三国志平话)》거나 금, 원(今, 元) 희곡가운데의 삼국희(三国戏)에는 봉건의식이 아주 뚜렷하게 반영되고있다. 《삼국연의》의 작자는 봉건통치를 수호하는 견지에서 "정사(正史)"와 평화, 희곡 가운데의 일부 봉건의식을 계승시켰을뿐아니라 당시 봉건통치자의 수요에 근거하여 모종 방면에서 그 사상을 강화하였다. 이점을 응당 주의해야 한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삼국연의》의 사상내용은 비교적 복잡하다. 《삼국연의》는 삼국의 력사적화폭을 펼쳐보이면서 봉건통치계급내부의 투쟁을 묘사하였고 그들의 포악하고 음험한 죄악들을 폭로하였다. 《삼국연의》는 "왕도(王道)", "인정(仁政)"의 실시를 고취한 동시에 봉건통치계급과 봉건통치를 노래했으며 농민혁명을 반대하고 공격하였으며 "영웅"력사관, 신권(神权)사상과 봉건미신을 고취하였고, 봉건도덕을 제창하였는바 특히 "충", "의" 등을 선양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봉건적인 찌꺼기를 버리고 그 민주적인 알짜를 섭취"할데 대한 모택동동지의 교시에 따라 비판적으로 《삼국연의》를 읽

어 이 소설로 하여금 우리 나라 고대력사를 료해함에 있어서의 일종의 사상적재료로 되게 하여야 한다.

2

《삼국연의》는 기원 3세기전후에 일어난 황건봉기와 그 봉기가 탄압된 과정을 반영하였고 위, 촉, 오 등 봉건통치집단의 내부투쟁을 폭넓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당시의 일부 력사정황을 반영하였다.

동한말년은 토지겸병이 격렬하고 지주의 착취가 잔혹하고 관부의 요역이 번중하고 정치가 여지없이 부패했던 암흑시대였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 농민에 대한 지주계급의 잔혹한 경제적착취와 정치적압박은 농민들로 하여금 무장투쟁으로 지주계급의 통치를 반대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이리하여 한차례 규모가 거대한 농민봉기-황건봉기가 드디여 기원 184년에 청천벽력마냥 맹렬히 폭발하였다. 황건봉기는 당시의 봉건통치를 유력하게 타격하였고 그의 토대를 뒤흔들어놓았으며 동한(东汉)왕조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였다. 지주계급은 멸망의 운명을 만구하려고 황건봉기군에 대하여 미친듯한 도살을 감행하였다. 황건봉기군은 비록 피비린 탄압을 받아 실패되였으나 죄악적인 동한왕조 역시 농민봉기의 충격하에서 전국에 대한 통치를 유지할수가 없게 되였다. 지주계급내부의 각파 무장집단은 농민봉기를 잔혹히 진압하면서 온갖 수단을 리용해 세력을 발전시키고 지반을 넓히였다. 전국의 최고통치권을 탈취하기 위한 피비린 투쟁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황건봉기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산생되고 장대하게 된 대소지주무장은 동한왕조를 대체하여 재산과 권력을 탈취하기 위하여 결사적인 음흉한 정치투쟁과 빈번한 군사혼전을 진행하였다. 《삼국연의》는 일정한 정도에서 상술한 정황을 반영하였다. "사방의 백성들이 모두 누런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장각을 따라서 일어나는자가 사오십만명이라 그 기세가 원체 크니 관군은 싹수가 그른것을 보자 그대

로들 흩어져버리는 형편이다." 이런 위급한 정황밑에서 봉건통치자들은 일면으로 "급히 조서를 내려서 여러곳에 방비를 엄하게 해서"(제1회) 완강히 저항하게 하는 한편 장병을 파견하여 황건봉기군에 향하여 반격하였다. 각지의 호강(豪强)지주도 대량의 자기네 계급의 지방무장을 분분히 긁어모아 "관군"과 배합하여 봉기군을 토벌하였다. 원래 서로 세력다툼을 하던 통치계급내부의 각 정치파벌과 군사집단도 지주계급정권을 수호하는 공동의 목표에서 서로 결탁하여 련합으로 봉기군을 미친듯이 탄압하였다. 농민봉기가 실패당하자 관료호강들은 또다시 혼전을 시작하였다. 한령제가 죽고 소제(少帝) 류변(刘辨)이 제위를 잇자 하진(何进)이 대권을 손아귀에 넣게 되였는데 환관들이 하진을 죽이자 원소(袁绍)가 또 군사를 일으켜서 환관들을 죽인다. 그후 동탁(董卓)이 서울로 올라와 원소를 몰아낸 뒤에 류변을 폐위시키고 헌제(献帝) 류협(刘协)을 제위에 올려앉힌다. 이렇게 되자 야심들을 품고있는 관료호강들이 조야호응(朝野号应)하여 동탁을 반대한다. 왕윤(王允)이 계책을 써서 동탁을 죽이자 동탁의 부하들은 또 왕윤과 기타 관료들에 대해 대도살을 감행한다. 원소를 위수로 하는 열입곱진(镇) 제후들이 동탁을 토벌한다는 이름으로 각기 한지방씩 할거해가지고 호상 혼전을 벌린다. 황건봉기 진압으로 기반을 마련한 조조(曹操), 류비(刘备), 손견(孙坚)은 여러차례 싸움가운데서 일보일보 자기의 세력을 확대한다. 조조는 "허도(许都)로 거가를 모셔가고 도읍을 옮기게" 한 이후로는 헌제의 이름으로 전국에다 호령할수 있었으며 11년의 장기적각축(角逐)을 경과하여 황하류역을 기본상 통일하고 중원지대를 할거한 대군벌로 되였다. 적벽대전(赤壁大战)이후에는 조조, 류비, 손권(孙权)의 삼국분립의 형세가 결정되였다. 그후 이 삼국의 혼전이 72년간 련속되다가 비로소 전국적통일을 보게 되였다. 이런 크고작은 호강, 군벌들은 로신이 묘사한바와 같이 "그들은 모두 자사자리하는 모래로서 자기 배를 불릴수만 있다면 자기 배를 불린다. 또 그 모래는 알알이 다 황제로서 칭제(称帝)만 할수 있다면 칭제를 한다."(《남강북조집·모래(南腔北调集·沙)》) 그들은 통치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오늘은 이 몇개 집단이 합쳤다가도 래일은 헤여지며 오늘은 몇개 집단이 갈라져 불구대천의 원쑤가 되여 싸우다가도 래

일은 술을 들어 화해하고 즐긴다.《삼국연의》에서의 이런 정황에 대한 묘사는 일정한 정도로 지주계급내부의 재산과 권력 재분배가 부단히 진행되였음을 반영한다. 이는 착취계급이 통치지위를 점한 사회에 있어서 일정한 보편성을 띠고있는바이다. 그러므로 이런 묘사는 우리에게 봉건사회의 력사를 리해하는데 도움을 줄뿐아니라 착취계급의 실질을 인식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삼국연의》는 이런 정치군사집단의 권리쟁탈의 첨예한 투쟁을 반영하였을뿐아니라 또 그들의 정치사기에 대하여 즉 그들의 암투와 기만의 장면들을 묘사하였다. 제78회에서 손권이 조조에게 황제가 되라고 권유하는 장면은 그 하나의 례이다. 일방을 강점한 대호강인 손권은 일찍부터 황제를 꿈꾸던 야심가였다. 그러나 그가 관우를 죽인데서 오, 촉 련맹이 파렬되여 형세가 불리하니 사자를 조조에게 띄워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위에 오르시고 장군을 파하여 류비를 멸하소서.", "수하백성을 거느리고 땅을 들어 항복하기가 원이로소이다."라는 글월을 보냈다. 손권의 이러한 술책은 조조와 류비 사이에 전쟁을 붙이려고 기도한것이며 또한 친한(亲汉)파로 하여금 조조를 진일보 반대케 하려는것이다. 그러므로 조조를 암해하는 일종 수단이였던것이다. 바로 조조가 말한바와 같이 "이 아이가 나더러 화로우에 올라앉으라는군."하는것이다. 또 106회에서는 사마의(司马懿)가 조상(曹爽)의 병권을 탈취하기전에 "내 이제 로쇠한데다 병이 중해서 곧 죽을 형편이라." 모양과 기타 여러가지 가상으로 조상의 마음을 마비시켜 조상으로 하여금 "근심이 없네." 하였다가 돌연습격하여 조상을 죽인다. 이와 같은 음모궤계의 례는《삼국연의》에서 여러번 보게 된다. 기실 이것 역시 착취계급의 상투적수법으로서 그들은 이런 수법을 인민군중에게 사용할뿐아니라 자기 계급의 정치적적수에게도 사용한다. 이는 착취계급의 반동본질에 의해서 결정된것이다. 그러므로《삼국연의》의 이런 묘사는 우리들에게 착취계급의 교사(狡诈)의 수단을 료해시키며 그들의 음모궤계를 간파하게 하는데 일정한 인식작용을 갖고있다.

이러한 크고작은 호강, 군벌들의 두손에는 피압박인민들의 피가 질벅히 묻어있다. 그들이 벌린 무수차의 혼전속에서 인민들은 끝없는 재난을 입었다. 동탁에 대한 이런 묘사가 있다. "한번은 동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탁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밖으로 나가 양성지방에 가보니 이때가 마침 이월이라 당굿이 있어서 온 고을 남녀로소가 모두 모여있었다. 동탁은 군사들에게 령을 내려 그들을 사면으로 둘러싸고 남자는 죽여버린 다음에 부녀들과 재물을 말끔히 략탈해서 수레에다 그득그득 싣고 수레아래에는 머리 천여개를 주렁주렁 매여달고 수백채 수레가 꼬리를 맞물고 성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동탁은 도적떼를 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떠벌이며 사람의 머리들은 성문아래서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부녀자들과 재물은 군사들에게 다 나누어주었다."(제4회) 동탁이 도읍을 락양에서 장안으로 옮길 때 출발에 앞서서 로략질을 하여 락양성내외로 하여금 "이삼백리사이에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못 듣겠고 인가들에 밥 짓는 연기를 못 보겠다". 가는 도중에는 "락양백성 수백만명을 다 몰고 장안으로 가게 하는데 대오를 나누어 백성 한대오에 군사 한대오씩을 붙여서 앞에서 팔을 잡아끌고 뒤에서 등을 쳐 내몰게 하니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는 사람의 수를 알수 없었다. 리각과 곽사는 또 군사들을 함부로 놓아서 남의 처자들을 겁탈하게 하며 량식과 재물을 빼앗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땅을 진동하는데 조금이라도 걸음을 더디게 걷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삼천명 군사가 성화같이 재촉하며 손에 뽑아든 칼을 휘둘러 길에서 그대로 사람을 쳐죽이는것이다."(제6회) 동탁뿐만아니라 기타의 호강, 군벌들도 역시 그러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에 그까짓 백성놈들을 생각하고있겠느냐!"(제6회)라고 한 이 말은 그들의 계급적 립장이 같다는것을 가장 여실히 설명하여주며 인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한것으로 자기들의 반동전제통치를 건립하였다는것과 인민군중의 피눈물과 백골로 자기들의 황음무치한 생활을 유지하였다는것을 적라라하게 폭로하였다.

그러나 작자는 이 사실을 봉건통치의 죄악을 폭로하기 위해 묘사한것이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왕도(王道)"를 가송하는 안받침으로 묘사한데 지나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는 동탁 등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의 "정면"인물을 찬양하는것으로써 봉건통치계급을 미화하고 "왕도"를 대대적으로 선양하였다.

지주계급은 인민군중을 기만하기 위하여 줄곧 "왕도"를 극력으

로 고취하였다. 그들은 "왕도"는 봉건통치의 "정도(正道)"로서 "왕도"를 실행하는 봉건통치자는 "관후하고 인자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따라서 인민은 이와 같은 통치자에 대하여 "순종"한다고 말한다. 《삼국연의》는 류비를 인민의 "애대"를 받는 "인자"한 통치자로 미화하였다. 즉 그를 "왕도"의 화신으로 삼아 가송하였다. 류비가 신야(新野), 번성(樊城)에서 철퇴한 그 장절에서는 이 점을 더우기 돌출화하였다. 작자의 붓끝에서 류비는 인민군중을 무한히 관심하며 인민군중을 위해서는 자신의 안위마저 도외시하는것으로 묘사되였고 인민군중은 또 류비에 대하여 지성으로 "애대"하며 죽을지언정 류비와 떨어지려 하지 않는것으로 묘사되였다. 봉건통치자인 류비와 광범한 인민군중사이는 추호의 모순대립이 없을뿐아니라 그야말로 생사와 고락을 같이하는것으로 그려져있다. 이런 묘사는 인물의 계급적본질을 외곡하였고 계급적모순을 말살하였다. 이는 확연히 지주계급을 춰올리고 봉건통치를 미화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왕도"정치를 시행하는 류비와 같은 봉건통치자들을 동경하도록 하려 한것이다.

특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점은 《삼국연의》가 류비를 통하여 "왕도"를 고취한 동시에 또 그를 봉건왕조의 "정통"대표로 내세운 점이다. 헌제가 황제로 있을 때 류비는 헌제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였다. 그는 "방금 조정은 문란하고 기강은 무너졌으며 간사한 영웅들은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악당들은 임금을 속이고있으니 류비의 가슴이 그대로 찢어지는듯하외다." (제37회), "큰뜻을 천하에 펴려고 하나"(제38회) 한왕조 중흥을 위하여 분투하련다고 결심을 다졌다. 헌제가 폐위를 당하자 류비는 사천에서 황제로 되여 한의 대통(大统)을 잇는데 작자는 이 사실을 가지고 촉한을 삼국의 "정통"으로 삼았던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동탁과 조조따위에 대하여서는 "기강"을 위반하고 "정통"을 파괴한 "란신적자(乱臣贼子)"로 이른바 "이름은 한조 재상이나 실은 한조의 국적이다."라고 거듭 질책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봉건왕조의 "정통", "봉건제도"의 충실한 옹호자는 "인자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왕도"를 실행하는 사람이며, 인민의 재난은 "란신적자"가 봉건적"기강"을 파괴하는데서 조성된것이고 따라서 "봉건통치의 본질을 놓고 말하면 인민을 보호하고 인민

의 리익과 일치되는것"이란것이다.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삼국연의》의 작자가 동탁과 조조 같은 인물을 비판한것은 그가 "정통"을 가송하고 "왕도"를 고취한것과 마찬가지로 봉건통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것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봉건통치를 수호하는 립장에서 출발하여 《삼국연의》는 농민혁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모욕하였다. 소설에 씌여있는 황건군은 한말의 한차례 위대한 농민봉기이다. 모주석께서는 자기의 저서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에서 다음과 같이 심각하게 지적하시였다. "중국봉건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농민의 계급투쟁, 농민의 봉기, 농민의 전쟁만이 력사발전의 진정한 동력이였다."

그러나 작자는 도리여 그들을 "황건적당"이라 거듭 모욕하였고 소설가운데의 이른바 "정면"인물의 입을 통하여 공공연히 농민봉기군을 전멸해야 하며 "만약에 항복을 받아들인다면 권선(劝善)할 길이 없을게요."(제2회)라는 주장을 하게 한다. 농민혁명을 반대하는 그의 태도는 아주 견결하고 선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왕도"의 허위성도 폭로하고있다. 바로 로신이 지적하다싶이 착취계급이 통치하는 사회에서는 "기실 왕도라고 하는것이 꼬물만치도 있어본 적이 없다." 〔《차개정잡문·중국의 두세가지 일에 관하여(且介亭杂文·关于中国的两三件事)》〕 봉건통치계급이 불어대는 그 무슨 "인자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은덕을 널리 베푼다"는것은 인민을 기만하여 인민의 혁명의지를 마비시키는 허위적구호로서 그 배후에는 인민군중에 대한 극히 잔혹한 학살과 박해가 숨겨져있었다. "왕도"와 "인정"을 높이 선양한 《삼국연의》가 봉기인민들을 잔혹히 도살할것을 공공연히 주장한 이것은 "왕도"의 반동적실질을 유력하게 설명해준다.

요컨대 《삼국연의》는 우리들에게 봉건사회의 력사를 인식시키는데 있어서 의의를 갖고있는 일부 재료들을 제공하였지만 또한 "왕도"를 선양하고 "정통"을 고취하고 농민봉기를 반대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에 근거하여 분석비판을 진행하여 이 책속의 봉건찌꺼기를 버려야 한다. 작품에서 노래한 "왕도", "인정"은 인민군중에 대한 기편이라는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동시에 작품가운데의 이른바 "란신적자"도 지주계급의 대

표이고 봉건통치의 체현자임을 보아내여야 한다. 오직 이런 관점이 있어야만 우리는《삼국연의》의 상관자료가운데서 황건봉기가 탄압당한후 사회생산력이 전례없이 파괴를 입었고 인민이 대량 학살되였고 두개 대립된 계급인 지주와 농민이 확연히 상반되는 생활을 하였다는것을 보아낼수 있다. 인민들은 도탄속에서 헐벗고 굶주렸는데 "백성들이 모두 나물을 캐여먹었고 굶어죽은 송장이 들에 쭉 깔렸다."(제13회) 그러나 동탁따위들을 대표로 한 지주계급들은 사치부화하고 황음무치한 생활을 누리였다. "미오성을 쌓았으니", "그 안에 궁실, 창고를 지어 이십년 먹을 량식을 쌓아놓고 민간의 소년과 미녀 팔백명을 뽑아다두고 또한 황금, 채단과 진귀한 주옥따위를 무수히 쌓아두었으니 일가족속들이 다 그안에서 산다." (제8회) 이렇게 바로 두개 계급은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있었다. 이로써도 우리들은 진일보로 봉건사회의 죄악을 인식할수 있으며 또한 농민봉기가 탄압된 이후 지주계급이 인민에 대하여 그 무슨 양보정책을 실행한것이 아니라 더욱 미친듯이 착취와 박해를 감행하였다는것을 인식할수 있다.

3

"인민, 오직 인민만이 세계의 력사를 창조하는 동력이다." 이는 맑스주의의 철같은 진리이다. 그러나 착취계급은 종시 이 사실을 천방백계로 외곡하고 력사를 소수 착취계급의 "영웅"인물이 창조하였다고 력설하고있다.《삼국연의》의 작자 역시 그러하다. 작품에서는 두 예술형상-류비와 조조, 이 통치계급내부의 대립된 두 인물을 치중하여 부각하였다. 이를테면 류비가 방통(庞统)을 대하여 "조조가 급하게 하면 나는 너그럽게 하고 조조가 사나웁게 하면 나는 어질게 하고 조조가 간특하게 하면 나는 충성되게 해서 매사에 조조와 서로 반대가 되게 해야만 대사를 가히 이룰수 있는것이요."(제60회)라고 한바와 같이 작자는 "류비를 옹호하고 조조를 반대"하는 정치적경향을 가지고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도 조조와 류비에게 확

연히 상반되는 표현수법을 썼는데 이런 묘사는 전 책에 관통되여있다. 그러하나 찬양하거나 질책하거나간에 정면인물이거나 반면인물이거나간에 작자는 "영웅"사관을 선양하고있다.

《삼국연의》는 류비를 리상화한 통치자, "왕도"와 "어진 정사를 베푸는" 대표인물로 묘사하였고 그의 봉건통치계급의 본질에 대해서 동한 황건봉기의 위대한 작용을 부인하고 황건봉기를 잔혹하게 진압한 농민에 향하여 역습을 감행한 봉건통치자에 대하여는 력사의 창조자로 떠받들었다. 도겸이 서주를 들어 류비에게 양도하려 하고 류비가 종시 사양을 하나 이 일을 가지고 작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 이튿날 서주백성들이 관가앞으로 몰려와서 절을 하고 울면서 '류사군께서 만약 이 고을을 맡아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모두 편안하게 살수가 없습니다.'"(제12회) 류비의 군대가 박망파에서 조조군대를 크게 격파하고 "신야로 회군하여 돌아간" 장면에 대하여 작자는 또 이렇게 묘사하였다. "신야백성들이 나와서 길을 막고 절을 하며 치사하였다. '우리들이 이처럼 온전히 사는게 모두가 사군께서 어진이를 얻으신 덕분입니다.'" (제39회) 력사를 전도한 이와 같은 묘사에 의하여 봉건통치자 류비는 구세주로 되여버린다. 류비가 인민의 옹호를 받았다는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작자는 또한 사냥군 류안이 자기의 처를 죽여서 그 고기를 류비에게 바친것으로 썼다. 류비가 서주에서 싸움에 패하자 인민들은 "중로에서 량식이 떨어져 그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과객질을 하며 가는데 어디를 가나 현덕이 왔다는 말만 들으면 모두들 다투어 음식을 차려다가 대접하는것이였다". 사냥군 류안은 "현덕이 저의 집에 찾아온 것을 알고 고기를 구해서 대접하고싶었으나 갑자기 어디서 얻어낼 도리가 없었다. 그래 그는 생각끝에 자기 처를 죽이고 그 살을 베여다가 현덕에게 드리였다".(제19회) 지주계급에 대한 진실성이 없는 이와 같은 미화는 류비형상에 대한 허위성을 증가하였다. 로신은 《중국소설사략》에서 "류비의 온후한 품을 나타내려 한것이 거짓에 가깝게 되였다."고 한것은 아주 적절한 비평이다. 그런데 류비의 대립면으로 삼게 된 조조에 대하여 《삼국연의》에서는 상당히 돌출한 인물로 묘사되였다.

력사상에서 조조는 저명한 정치가요, 군사가요, 시인이다. 그는

나라가 분렬되고 혼란에 빠졌던 삼국시기에 우리 나라 북방을 통일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놀았었다. 《삼국연의》는 그의 이러한 작용에 대하여 긍정하지 않았으며 그를 "정통"을 파괴하고 "기강"을 위반하는 란세(乱世)의 간웅으로 삼아서 부정하였다. 이는 작자의 유자정치관점을 반영하는것으로서 "조조를 관찰하는 진정한 방법이 아니다." [로신: 《위진의 풍도와 문장 및 약과 술의 관계(魏晋风度及文章与药及酒之关系)》] 그러나 《삼국연의》는 조조의 인물형상을 통하여 도리여 봉건통치계급의 잔혹성과 특점을 반영하였으며 심각한 전형적의의를 부여하였다.

조조는 농민봉기의 원쑤이며 황건봉기군을 탄압한 살인흉수이다. 그는 호강들이 혼전하는 과정에서 일보일보 세력을 확대하여 마지막에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는" 지위에 올랐고 권세를 잡았다. 조조의 인생철학은 "내가 차라리 천하사람들을 저버리면 저버렸지 천하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는 두지 않겠다."는것이다. 이 말은 착취계급 처세철학의 집중이고 개괄이다. 극단적인 손인리기(损人利己)의 특점과 끝없는 탐욕, 권세욕을 갖고있는 조조에게는 봉건통치계급의 전부의 악렬한 품질이 집중되여있다. 이 봉건지주계급의 대표인물에 대하여 《삼국연의》는 풍부하고 구체적인 세부묘사와 심리활동묘사를 통하여 돌출하게 표현시키고있다. 그의 몸에는 여러 방면의 복잡한 성격특징이 구비되여있다. 군웅할거의 국면에서 강자로, 승리자로 된 조조는 풍운이 돌변하는 그 년대에 각개 집단의 장점과 약점을 인식하였고 사변발전과정중의 각종 모순을 료해하였고 능란하게 인재를 발견하고 사용하였다. 반면인물로서의 조조에 대하여 소설에는 간명하게 일견에 악당이라는것이 보여지도록 묘술되여있지는 않았다. 그의 몸에서는 교사함과 포악한것이 특히 심각하게 표현되여있다. 상술한바와 같이 그에게는 모략이 있고 재간도 있으나 이른바 그 "모략"과 "재간"은 극단적인 유아주의(唯我主义)를 위해 복무되고있다. 바로 이런 까닭에 "모략"은 그로 하여금 더욱 교사하게 하였고 "재간"은 그로 하여금 더욱 포악하게 하였다. 조조는 공포와 의심에서 려백사(吕伯奢)일가를 몰살하였으며, 려포를 꼬여내기 위하여 포로된 군중들을 다 잡아죽였으며 저의 아비의 원쑤를 갚으려고 서주를 칠 때는 군사들에게 시켜 "조조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